

- **現場專家 1**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가속 페달 밟는 중국 에너지개혁 / 1
- **現場專家 2**  
중국 3G 시장의 Loser와 Winner / 11
- **<China Trends·29>**  
인터넷을 통해 본 중국의 북한관 변화 / 21
- **中國經濟 關注數字 / 29**
- **Graphic 中國經濟**  
중국 지역별 '천만 장자' 분포 外 / 30

---

격월로 발간되는 <LG瞭望中國>은 경제연구실 소속 박래정 이철용 연구  
위원과 썬자 선임연구원 등이 집필하거나, 혹은 중국 현지 전문가들에게  
직접 기고를 의뢰해 편집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각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집필자의 e메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가속 페달 밟는 중국 에너지개혁

글로벌 위기 발생 이후 중국의 에너지 개혁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극대화 등 녹색성장은 경제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관련 계획도 잇따라 발표됐다. 위기로 인해 중국 국내 에너지 수요가 줄어드는 바람에 공급부족 문제가 누그러져 에너지 가격개혁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현지의 시각도 전해진다.

중국의 에너지 가격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경기상황이 나빠지자 일부 지방정부는 소속 기업에게 우대가격을 제공하려는 인센티브를 뿌리치기 어렵다. 경기를 살리면서, 에너지 가격의 시장화를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LG China Insight>는 중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에너지경제실의 주통(朱彤) 부주임에게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려 하는지 들어본다. 주 부주임 기고에는 중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에너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

<편집자 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 중국 국내 에너지 수요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에너지 기업의 수익이 악화하고 에너지산업 발전이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위기가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면이 있다. 정부 내 주요 에너지 관리부처(발전개혁위원회, 능원국, 전력감독위원회 등)와 에너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환경변화가 에너지 분야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략적인 기회를 제공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관점은 최근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도 많이 반영돼 향후 에너지 가격 추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

## 1. 위기 이후 에너지 정책의 3대 전략

금융위기 발생 이후 중국 에너지정책 변화는 주로 낙후 생산능력의 신속한 도태를 통한 에너지 산업구조의 최적화, 에너지가격 개혁, 그리고 신(新)에너지와 재생가능 에너지의 위상 제고 등 3가지 측면에 집중된다.

### (1) 산업 고도화

석탄, 전기와 석유제품의 수요감소로 시장의 수급이 균형을 되찾고 있다. 이러한 시장환경을 바탕으로 2009년 이래 정부의 에너지정책 담당부처가 에너지산업 고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소규모 탄광, 화력발전소, 정유공장에 대한 폐쇄조치를 강화했다.

#### (가) 소형 탄광 폐쇄

2009년 4월2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소규모 탄광 집중 관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서는 발개위, 능원국, 안전감독총국, 국가석탄감독국 등 4개 부처가 소규모 탄광의 생산성, 안전성에 대한 단속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연 생산량이 30만 톤 이하의 탄광이다.

이번 조치로 수많은 소형 탄광의 폐쇄가 불가피할 것이다. 소형 탄광들은 대개 안전생산조건 미달, 생산기술 낙후, 통풍장치 부족, 가스배출 장치 불량 등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이 국가의 안전 표준을 지키려면 채굴비용이 500위안/톤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석탄의 시장가격이 다시 대폭 상승하지 않는 한 수익을 내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정부가 소형 탄광을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우회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소형 탄광은 중국 전체 탄광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전국의 1/3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 소형 탄광 정리조치가 석탄공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나) 소형 정유설비 폐쇄 유도

2009년 5월18일 국가 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조정과 진흥 계획 세척’ 역시 향후 2년간 기술이 낙후됐고 안전관리가 허술하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큰 정유업체를 도태시키려는 구조조정안이다. 동 세척은 연 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의 ‘저효율, 저품질’ 정유설비를 도태시키고, 100~200만 톤 정유설

---

비의 폐쇄 및 합병을 적극 유도하며, 아스팔트나 나프타 가공 등 명의로 정유 프로젝트를 신설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정책으로 지방 정유업체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말 현재 중국의 지방 정유업체는 총 99개, 연간 8,805만 톤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중 규모가 가장 큰 업체의 연간 가공능력도 500만 톤에 미치지 못하고, 연간 10만 톤을 겨우 넘기는 영세업체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신규 대형 정유 프로젝트의 사업주체는 대부분 중국석화(SINOPEC), 중국석유(CNPC), 중국해유(CNOOC)이다. 이번 세칙으로 중국 정유시장의 집중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다) 화력발전 설비도 추가로 구조조정**

최근 수년간 중국 전력산업을 상대로 실시해온 ‘상대압소(上大壓小: 큰 설비를 키우고 소형을 억누른다)’ 업무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2006~2008년 3년간 폐쇄된 소형 화력발전기 설비용량은 3,420만 Kw로 11차 5개년 계획 목표치의 68.4%에 달했다. 2009년 초 전국에너지공작회의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겸 에너지국 국장 장궈바오(張國寶)가 “전력 수요가 하락하고 있는 유리한 상황을 충분히 활용해서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켜 상대압소(上大壓小)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11년까지 향후 3년 동안 1,300만kw, 1,000만 kw와 800만 kw의 소형 화력발전기를 추가 폐쇄하는 반면 5000만kw 이상의 고효율·청결형 대형 석탄연료 발전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공개됐다.

## **(2) 에너지 가격개혁**

중국 정부는 석탄 이외의 주요 에너지제품 가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대폭 하락이 시장개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올 들어 중국이 실행했거나, 실행 예정인 에너지 개혁정책은 크게 3가지이다.

### **(가) 정제유 국내 가격의 국제 연동체제 도입**

과거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국제원유 가격을 바탕으로 국내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제유 국내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채용했다. 그러나 국제 원유가

---

격이 변동할 때 국내 가격을 언제, 얼마나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없었다. 발개위가 판단해 국무원에 가격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식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국제 원유가격이 폭등했지만 중국 국내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우려해 발개위는 국내 정제유 가격 조정을 미뤘다. 그 결과 국제원유가격이 130달러를 돌파할 때에도 국내 정제유 가격은 국제 원유가가 68달러 때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결과는 석유공급업체의 엄청난 적자행진과 에너지 과소비 풍조이다.

2009년 5월8일 발전개혁위원회가 ‘석유가격관리방법(시행)’를 발표했다. 국제시장 원유가격(이동평균치)이 22개 영업일 동안 4% 이상 등락할 경우 국내 정제유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처음으로 국내 정제유가격 조정방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량화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국제원유가격의 변동 폭에 따라 정유업체의 정제 수익률의 결정 기준도 공개했다. 즉 국제시장 원유가격이 배럴 당 8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경우,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정상적인 정제 이윤율에 근거해 계산하지만, 80달러 이상일 경우엔 정제 이윤을 단계별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원유가격이 배럴 당 130달러 이상일 경우, 국가가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모두 고려해 적절한 세수(財稅) 정책을 채택한다. 새로운 가격 조정안에 따라 발개위는 지난 6월1일 국내 휘발유, 디젤유의 가격을 톤당 400위안씩 인상하는 것을 허용했다.

### (나) 지역이기적 전기가격 우대정책 억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지방정부들이 에너지를 과다 소모하는 산업에 대해 전기가격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사례가 확산됐다. 내몽고(內蒙古)가 가장 먼저 전기가격 우대정책을 실시한 데 이어 영하(寧夏), 청해(靑海), 섬서(陝西), 감숙(甘肅), 광서(廣西), 운남(雲南), 사천(四川) 등 지방에도 지방정부 문건 혹은 구두약정 등 방식으로 전기우대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서부지방 8개 성(省)이 집단적으로 에너지 고소모 산업에 대한 전기가격 우대정책을 실시한 것은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고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역행하는 일이며 중앙정부의 전력정책과도 맞지 않다. 따라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전력감독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2009년 2월25일에 ‘전기가격 우대정책 철회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각 지방이 3월15일 이전까지 에너지 고소모 기업에 대한 우대를 전면

---

중지하고 가격 개혁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경기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에너지절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우대정책 폐지는 에너지 고소모 제품의 생산비용을 크게 상승시켜 관련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관련 기업들의 전기 수요량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전력산업의 매출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 **(다) 2009년 전력가격 개혁은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전망**

석탄 등 1차 자원의 가격조정을 시장에 맡기면서, 석탄으로 생산하는 전력가격을 규제한다면 필연적으로 전력산업의 적자는 심화된다. 중국 정부의 올해 전력가격 개혁은 다음 두 가지가 골자를 이루고 있다.

첫째, 전력 ‘직접 구매’의 시범 범위를 확대한다. 공업신식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전력감독위원회, 국가에너지국 등 4개 정부부처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전해알루미늄 생산기업에 전력 직접구매 시범 실시에 관한 통지’가 대표적이다. 전력을 과소모하는 15개 전해알루미늄 기업이 직접 발전업체와 가격협상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력업체들의 독점피해를 줄이고, 중간 유통단계를 줄여 전력단가를 낮출 수 있다.

둘째, 송전가격 개혁이다. 송전 및 배전단계의 비용정산이 어려운 것이 오래전부터 전력 가격개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2009년 3월17일 국가전력감독위원회가 전인대를 대상으로 전력체제 개혁을 약속한 이후 전기수송의 실질비용 정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송전가격 및 판매가격의 적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 **(3) 신(新)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략적 지위 상승**

CO2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자원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은 신(新)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의 육성을 전략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개요(1996~2010년)’, ‘2000~2015년 신에너지산업의 발전계획 개요’, ‘재생가능에너지법 (2005년)’, ‘재생가능에너지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도 잇따라 제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 고위층의 다양한 언급을 종합하면,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이 더욱 높은 정책적 우선 순위를 받게 될 것이다.

---

2009년 4월 장궈바오(張國寶) 국가에너지국장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치유시(求是)’에 ‘과학발전은 전력산업이 도전에서 이기는 근본적인 길이다’란 기고문을 발표했다. 중국 전력산업의 발전 동력을 바꾸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원래 11차 5개년 계획에서 나온 중국의 전력 발전 중심내용은 ‘고효율·친환경적 대형설비를 통해 화력발전을 최적화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전제하에 수력발전을 개발하며, 원자력 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 큰 힘을 기울인다’였다. 그러나 장 국장의 글에서 관련 내용은 ‘원자력 발전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풍력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를 대대적으로 촉진하며, 수력발전을 적극 개발하고 석탄발전 산업을 최적화한다’고 재정의됐다. 발전의 우선순위와 의미가 11차5개년 계획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친환경 발전의 전략적 지위를 더욱 상승시킨 것이다.

### **(가) 원자력 발전 최우선과제**

원자력발전정책의 우선순위가 3위에서 1위로 상승된 것과 함께 정책 용어도 ‘적극 추진’에서 ‘가속 발전’으로 바뀌었다. 현재 중국의 원자력 발전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매우 낮다. 발전개혁위원회가 정한 기존의 ‘원자력 발전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총 설비용량이 4,000만kw에 달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이 목표치는 1억 kw(완공용량 7,000만 kw, 건설 중 용량 3,000만kw)로 상향 조정됐다. 향후 3년간 중국은 8개 원자력 발전소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는 과거 23년 동안 건설규모에 맞먹는 것이다.

### **(나)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목표치 상향조정**

재생가능에너지의 우선순위도 최하위에서 2위까지 올랐다. 최근 장 국장은 2010년 전후 중국의 풍력발전 용량을 2,000만kw로 끌어올려 세계 최대의 풍력발전국가로 부상한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2020년 중국 수력발전을 제외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현재의 1.5%에서 6%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기존의 ‘재생가능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는 500만kw였지만, 최근 발표한 ‘신에너지 진흥계획초안’에서는 2020년 중국의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등 전기설비용량이 각각 1.5억kw와 2,000만kw에 도달해야 한다고 재설정했다. 기존 목표치 보다 5배와 11배 가량 높아진 것이다.

---

2009년 3월26일 재정부, 국가건설부 등이 ‘태양에너지 발전 건축 응용 가속 추진관련 의견’ 등을 내놓았다. 조건에 부합하는 태양에너지 발전 건축 시범 프로젝트에 와트(W)당 20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는 중국 태양에너지 발전 산업 가동 시그널로 인식되고 있다.

## 2. 최근 에너지 가격의 변화추세와 전망

2008년 12월 국가에너지국(에너지국)의 고위 관리들은 “상황이 어려워도 에너지 가격 개혁을 지속된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현재 중국의 에너지제품과 서비스가격이 매우 낮아 공급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에너지채굴, 이용 및 전환 과정에서 환경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시각이다. 기본 에너지 정책목표인 절능감배(節能減排: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선 에너지가격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경제는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2009년 하반기에도 중국경제는 빠른 상승세로 돌아서기보다는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국의 에너지가격 개혁은 단기적으로 ‘안정유지’에 치중하겠지만, 에너지 가격체계의 개선을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1) 전력가격: ‘안정 속 소폭 하락, 장기적으로 상승이 불가피

전력은 가장 중요한 최종에너지로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격통제가 가장 엄격했다. 2008년 상반기 석탄가격이 80%이상 올랐지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7월1일과 8월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력가격을 소폭 조정했을 뿐이다. 그 결과 2008년 전력산업이 적자의 늪에 빠져들었다.

2008년 10월 이후 국내 석탄가격은 다시 발전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으로 하락해 연초 수준에 근접했다. 발전업체들은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전력가격의 인상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가동률 하락, 전기사용량 감소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정부가 전력가격 인상을 허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시장의 공급관계와 정부정책을 종합해보면 올해 하반기 중국 전력가격은 대체로 기존가격을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이다.

최근 상황을 보면, 2008년 10월 이후(2009년 2월 제외) 전기사용량은 모두 전년 동월대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휴 덕택에 지난 5월 전기사용량은 전월보다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전년 동월대비 2.58% 하락한 수준이었다.

---

경기가 점차 살아나면서 하반기 전력사용량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발전설비 용량의 빠른 증가세를 볼 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재현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급요인을 놓고 보면, 올 하반기 전력가격의 상승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올 하반기 전력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책변수는 3가지이다. 첫째, 전력 ‘직접구매’ 범위가 확대될수록 제조업 전력가격 수준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혜농(惠農)’ 정책이 농촌 농업용 전력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다. 셋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가격상승정책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상무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상업용 전기가격을 낮추려 한다는 설도 나온다. 정리해 보면 정책 측면에서 전기가격의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뒤섞여 있으나 대체로 하락요인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전력산업 구조조정,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정책 등으로 전력가격의 ‘안정적인 상승’이 대세다. 중국 정부는 송전망 업체로 하여금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가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게 하고, 풍력 생물에너지 태양에너지에 대해 차별화 가격설정 등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할 것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전기의 원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송전망 접속 가격을 책정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풍력발전, 원자력발전, 생물에너지발전 등 생산단가가 모두 화력발전보다 높다. 향후 전기생산구조가 변화되고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이 갈수록 증대된다면, 이들의 송전망 접속단가와 연이은 소매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는 전반적인 전기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 (2) 정제유가격: 재빠른 조정, 장기적인 개혁방향 불투명

글로벌 위기 발생 이후 중국 정제유의 가격형성 메커니즘은 여전히 국제원유가격을 매개로 하는 ‘관리변동제’이다. 다만 앞 부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석유가격관리방법’에서 국제원유 가격변화의 시간(22개 영업일)과 가격 변화폭(4%)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과거엔 시장변화에 크게 뒤쳐진 ‘만속심조(慢速深調: 속도는 느리고 조정 폭이 크다)’식의 가격조정이 이뤄졌지만, 이젠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80달러 이하에 떨어질 경우 국내 가격도 빠른 시일 내에 소폭으로 조정될 것이다(小步快調).

---

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초과할 경우 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정제유 가격의 조정 폭은 더욱 좁아질 것이다.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80달러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지난 6월1일 시행된 유가 상향조정은 정해진 상승 폭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하강 요인을 감안한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가격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에 놓여있다. 정부는 가격개혁의 방향을 시장화로 정했지만, 여전히 국제 원유가격 변화를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제유 가격의 시장화 메커니즘을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분명한 설명이 없다.

사실 시장화 개혁의 핵심은 정제유 기업들간의 경쟁구도 형성이다. 시장효율의 극대화는 경쟁체제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내놓은 가격개혁 방안에서는 경쟁시장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이 없다. 유가개혁의 장기적인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 **(3) 천연가스: 중기적으로 대폭 상승**

중국의 천연가스 가격 역시 정부가 지도 확정한다. 천연가스 산업체계의 각 부문 가격을 등급별로 정부 각 부처가 따로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천연가스의 출고가와 파이프 운송가격을, 성(省)급 물가부처는 천연가스의 시장 소매가격을 결정한다.

중국 국내의 천연가스 가격은 발굴비, 정화비용 및 파이프 운송비용 등으로 구성되지만, 천연가스의 사용자 및 사용 분야(화학비료, 일반 주민, 상업용, 난방용, 제조업, 호텔, 식당, 자동차용 등)에 따라 가격이 차별화돼 있다. ‘계획 가격’과 ‘직판 가격’이 동시에 적용되는 유일한 이중가격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천연가스 가격개혁 방안을 국무원에 제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새 가격 결정체제는 국제원유가격을 바탕으로 발열량 등 기타 조건을 참조하여 최종 가격을 정하는 식이다.

중국 천연가스 사용자의 절반은 일반 주민인 만큼 그 가격은 ‘민생(民生)’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발개위의 천연가스 가격개혁 방안이 하반기에 승인을 받더라도 천연가스 가격은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 새로운 가격결정 방식을 채택하되, 현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소폭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보다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중서부 지역의 일반 소비자용 천연가스 요금은 당분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중장기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여지는 매우 넓다. 고효율 청정에너지로서 천연가스의 가치는 현재의 가격수준을 넘어선다. 게다가 중국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많지 않아 수요증가에 따라 수입해야 할 파이프 천연가스(PNG)와 각종 액화가스의 양도 늘게 된다. 따라서 향후 천연가스의 가격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내의 천연가스 출고가는 국제원유가격의 15~50%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미국뉴욕 선물거래소의 원유와 천연가스간의 가격비는 75~200%에 달한다. 국제원유 가격을 참조한다면 향후 국내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여지가 매우 크다.

#### **(4) 석탄가격: 단기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조정, 장기적으로 안정적 상승**

석탄가격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2008년 상반기 석탄가격 인상으로 전력업체가 정책성 적자를 기록하자, 그 해 6월 발개위가 가격 상한제를 잠정적으로 내놓았지만 올해 1월1일 이를 철회했다.

2009년 1~5월 국내 석탄가격은 전년 3/4분기 고점에서부터 크게 하락한 수준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올 1/4분기 전국 대형 석탄기업의 원탄 출고가가 452.2위안/톤으로 전년 4/4분기보다 3.3%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대비 13.5% 상승했다. 올 하반기에도 석탄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압력을 받겠지만 가격의 하락공간은 좁다. 오히려 완만한 상승이 기대된다.

첫째 5월 들어 산서(山西)성에서 생산을 중단했던 탄광들이 서서히 생산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둘째, 발개위와 안전감독총국 등 부처가 소형탄광에 대한 단속강도를 강화함에 따라 석탄생산 총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셋째, 2/4분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석탄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넷째, 국토자원부는 과잉투자 등으로 인한 석탄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3월31일까지 신규 탄광개발 신청절차를 중단시켰다.

향후 중국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한다는 전망 하에 중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와 화공원자재인 석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와 병행해 환경규제와 안전생산 표준이 엄격해지면서 석탄의 생산비용은 상승할 것이다. 두 가지 요인을 종합하면, 국내 석탄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 중국 3G 시장의 Loser와 Winner

지난해 통신 산업 구조개편에 이어 올해 1월 중국 공업신식화부가 3대 주요 통신사업자에 3G 라이선스를 발급하면서 3G 시대의 막이 올랐다. 중국 정부는 내수진작 및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3G를 집중 육성할 방침인데, 향후 3년간 이통 3사가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할 금액만도 4,000억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3G는 중국 통신시장의 경쟁 판도에도 큰 충격을 몰고 올 것이다. 2G시대와 달리 개별 통신사업자보다 각 업체가 채택한 3G 표준의 전반적인 산업사슬 경쟁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대체로 3G가 각 업체 수익성을 끌어올리겠지만, 차이나 유니콤의 입지가 가장 유리한 반면 차이나 텔레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통신설비, 단말기 시장도 지각변동도 예상된다.

중국 광따(光大)증권 리서치센터의 저우리치안(周勵謙) 통신산업 애널리스트가 <LG China Insight>의 요청에 따라 3G 각 표준의 장단점, 정부 지원책 등을 통해 통신산업 및 시장을 전망해봤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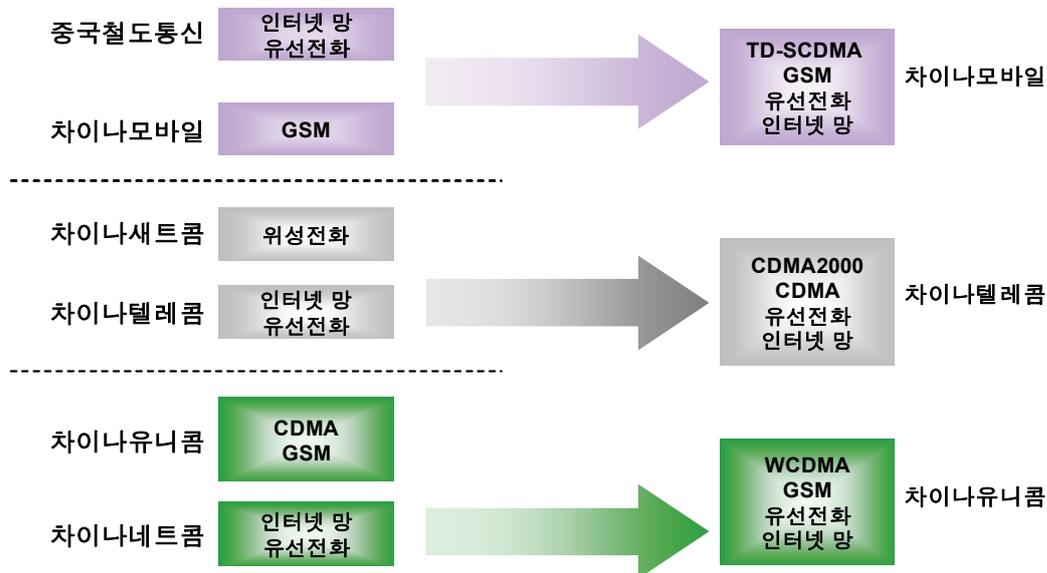
### 막 오른 3G시대

2008년 5월24일, 중국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3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전자통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데 관한 공고’를 발표해 중국 통신업계 재편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공고의 주요내용은 ① 차이나 텔레콤(CT)이 차이나 유니콤(CU) CDMA 네트워크 및 자산 및 고객을 인수하도록 유도하며 ② 차이나 네트콤(CNC)과 CU가 합병하고 ③ 차이나 셋콤(CS)의 기초 전신업무는 차이나 텔레콤에 통합하고 ④ 차이나 모바일(CM)이 중국 철도통신(China Railcom)을 인수한다는 것이다.

구조개선 목표는 국익 최대화이다. TD-SCDMA 산업체인 발전에 유리한 환경 조성, 국유자산 가치 상승, 전자통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적절한 경쟁 유도 등이 구체적인 정책 목표이다. 구조개편이 일단락되자 올해 1월 7일 공업정보화부는

TD-SCDMA, CDMA2000와 WCDMA 라이선스를 각각 CM CT CU에 발급했다. 이 같은 구조변화는 <그림 1>에 나타나있다.

<그림 1> 개편 전후 통신업계의 구조변화



‘글로벌 통신산업을 보려면 3G를 보고, 중국의 3G를 보려면 TD를 주목하라’라는 말이 있다. 3G는 중국이 이루기 어려운 단계였으나 3가지 요인이 3G라이선스 발급을 가능하게 했다.

첫째, 세계적으로 3G 산업체인이 이미 성숙되어 관련 서비스 및 제품이 적잖이 상용화됐다. 3G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단말기, 수익모델 등 문제도 모두 완만히 해결되었다. 중국의 경우 자체 표준인 TD-SCDMA의 발전이 성숙단계에 이르렀고 상용화도 가능해졌다.

둘째, 음성업무의 발전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자, 중국 통신서비스 업체들이 더욱 넓은 데이터통신 대역폭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생겨났다. 앞서 일본의 NTT DocoMo, 한국의 SKT 역시 풍부한 3G서비스 업무를 통해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치의 하락을 막을 수 있었다.

셋째, 중국 내 관련 제조업체들도 3G를 위해 다년간의 준비를 해왔다. 관련 설비, 단말기, 칩 생산업체 등은 3G가 가져올 기회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정부도 전자통신 산업 체인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3G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다.

중국 통신사업자들의 경영활동은 주로 국내시장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글로

---

별 금융위기로부터 받은 영향은 크지 않다. 공업신식화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통신업무 수입은 8,139.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7% 증가했다. 향후 3년간 중국 통신업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중국정부의 ‘정보화로 공업화를 선도하고 공업화로 정보화를 추진한다’는 발전전략이 통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구조개편 이후 통신사업자들이 ‘전(全)업무’ 운영방식을 도입하면서 음성, 데이터, 네트워크 등 복합적인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고객을 위해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중국의 광대역 및 이동전화 보급률이 더 상승할 여지가 크다. 현재 중국의 광대역 보급률은 6.27%에 불과해 세계 평균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이동통신 보급률은 47.3%로 세계 대부분 통신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셋째, 3G 업무의 전개가 통신사업자들의 수익을 제고할 수 있다.

### 3G 시대의 경쟁은 산업사슬간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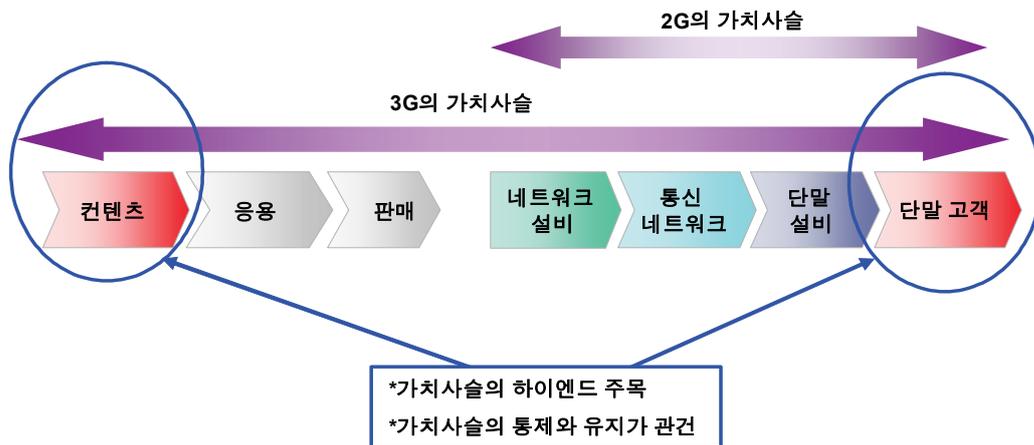
전통적인 2G의 가치사슬(Value Chain)의 중심은 제조업체의 설비가격, 통신 네트워크의 품질 및 단말기 사용자들의 만족도로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3G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확장된 산업사슬이 존재하기 때문에 ‘윈-윈’을 위한 업체간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3G시대의 경쟁은 통신사업자 간보다 이들을 포함한 산업사슬 간의 경쟁으로 발전되고 있다. 네트워크의 ‘광대역화’ 및 이동화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스템설비, 단말기업체, 콘텐츠 개발업체, 칩 제조업체 등이 구성되는 산업가치사슬의 수준이 곧바로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그림2>참조). 통신사업자들은 그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얼마나 자신의 경쟁우위를 앞세워 산업체인의 업/다운스트림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표 1>은 산업체인을 설비성숙도, 단말기 성숙도, 상용화 버전, 네트워크 건설 비용, 운영비용 및 정부의 지원강도 등 여러 항목으로 나눠 분석한 것이다. 3G의 3가지 표준을 비교해보면 WCDMA와 CDMA가 오래 전부터 개발되었기 때문에 설비 성숙도 면에서 앞서고, TD-SCDMA는 기술적인 장애는 없지만 대규모 상용화가 아직 되지 않아 다른 표준보다 성숙도가 다소 떨어진다. 단말기의 경우 WCDMA 표준을 채택한 사업자와 연구개발 업체 수가 가장 많다. CDMA 방식 단

말기 수도 적지 않지만 연구개발 업체 수는 WCDMA에 따르지 못한다. TD-SCDMA는 2008년이 되어서야 연구개발 업체수가 늘기 시작했는데 다른 표준보다 뒤쳐진 상태다.

<그림 2> 2G와 3G 의 가치사슬 (Value Chain) 구성



상용버전을 보면 WCDMA와 CDMA2000 모두 성숙한 버전을 가지고 있는 반면 TD-SCDMA 상용버전의 안정성은 아직 검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트워크의 건설과 운영 측면을 봐도 WCDMA와 CDMA가 절대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다. 다만 TD-SCDMA제품의 대규모 상용화가 진행되면 다른 표준과의 네트워크 건설 비용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TD-SCDMA가 다른 표준보다 앞선 부분은 오직 정부의 지원혜택뿐이다. TD-SCDMA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자주창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1월22일 중국 5개 정부부처가 재정지원, 프로젝트지원, 네트워크건설, 제품개발, 업무응용, 산업발전 등 6개 분야를 포함한 일련의 TD-SCDMA 지원책을 내놓았다. TD-SCDMA 기술개발과 산업사슬 정비를 전자발전기금과 집적회로 전문자금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키고, TD-SCDMA제품과 응용을 정부구매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며, TD-SCDMA 등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개발에 종사하는 기업 및 관련 소프트웨어제품은 ‘소프트웨어제품과 집적회로 산업발전의 관련 격려정책’에 준하는 우대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등 지원 강도가 매우 높다.

현재 TD-SCDMA, WCDMA, CDMA2000은 서로 장단점이 있다. CM은 기존에 쌓았던 기업경쟁력으로 TD-SCDMA 표준의 약점을 메우는 반면 실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CU는 성숙도가 높은 WCDMA의 덕택을 보게 된다. 통신사업의 경우 표준

준 자체의 경쟁력이 전체 경쟁판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가오는 3G시대에서 WCDMA 사업권을 획득한 CU의 전망이 더 밝아 보인다.

**<표 1> 3가지 3G표준의 항목별 비교**

항목	TD-SCDMA	WCDMA	CDMA2000
설비산업사슬	3	5	4
단말산업사슬	2	5	3
상용화 버전	3	5	5
네트워크 건설비용	3	4	5
운영비용	4	5	4
업무지원능력	4	5	4
국제로밍능력	2	5	3
정부지원강도	5	3	3
총평	3.3	4.6	3.9

주: 경쟁력 강약을 점수 1~5점으로 평가

### 3대 통신사업자의 향후 3G 수익성

#### ▶ CU: 신중한 행보, 강한 자신감

CU는 WCDMA 네트워크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3G 사용자에게 대대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대신 우호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 상용화 서비스를 실시하는 중이다. 현황은 아래와 같다.

- 1) 전국 284개 도시에서 WCDMA 네트워크 건설 및 최적화 작업. 11월 17일경 전국적으로 번호를 부여할 것으로 전망
- 2) 그 동안의 시범 상용화 기간 중 WCDMA 단말기, 네트워크 카드 등의 판매채널 정비
- 3) 상용화 후 3G 업무 플랫폼을 통합하고 외국의 성공적 3G 업무 모델을 도입

현재 CU가 WCDMA 사용자 유치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신감

---

때문일 수 있다. 앞 부분에서 지적했듯 WCDMA는 기술, 단말기, 로밍 등 여러 면에서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어 서두르지 않고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CU는 시범 상용화 단계에서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2G에서 3G로의 번호이동을 지원하지 않는 등 고객에겐 불리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WCDMA의 공식 상용화가 개시되면, 이러한 규정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 ▶ CM: 방어가 최선의 시장전략

2G시대의 CM은 정책 지원에 힘입어 단시일 내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 사업자로 부상했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 때문에 3G 시대에 자연스럽게 TD-SCDMA 상용화라는 역사적인 임무를 맡게 되었다. TD-SCDMA의 낮은 성속도와 3G 로밍을 지원하지 않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프리미엄 고객 유치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말기 모델이 부족한 데다 단말기업체가 대부분 저가 브랜드 업체들이라는 점으로 인해 패션 민감도 높은 소비계층으로부터 외면 당할 수 있다.

CM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단말기 부족이라는 단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해왔다.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사업의 핵심으로 하며 TD 인터넷 카드와 TD 전용 노트북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서비스 업무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T, CU의 고정식 광대역과 경쟁할 수 있다. 정부의 대폭 지원과 CM의 적극 노력을 통해 TD의 경쟁력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 ▶ CT: 길게 보면 비관적

CT도 발전 초기 CM과 같이 휴대폰 단말기 부족 문제에 봉착했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이 CM과 다르다. 무엇보다도 CDMA가 세계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 표준을 지원하는 단말기 업체들이 점차 줄고 있는 것이다. 또 번호부여 방식의 다양화 및 중국 소비자들의 단말기 사용습관 등으로 중국에선 SIM 카드 분리식 단말기가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해외에서 CDMA방식의 단말기는 대부분 SIM카드가 내장된 일체형 모델이기 때문에 해외의 신형 모델 단말기를 도입하기가 어렵다.

향후 3G 네트워크가 점차 완비되면 사용자들은 2G 단말기를 처분하면서 3G 단말기(Dual Mode 포함)로 이행하는 대체수요가 클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진정한 경쟁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기술적으로 영상통화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CT CDMA 2000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다. 게다가 단말기 모델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격이 비싼 것은 향후 고객유치에 매우 부정적이다. 물론 CT는 단말기 공급 채널 및 모델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일체형 단말기도 대안 중 하나이다.

3사의 향후 유치고객 수 및 ARPU치에 대한 예측 결과가 <표2>에 나타나있다.

<표 2> 각 통신사업자의 유치 고객 수 및 ARPU치 예측

		2009년	2010년	2011년	
차이나 유니콤	고객수 (백만 명)	GSM	143.7	129.2	67
		WCDMA	0.85	36.8	120.6
	ARPU치 (위안)	GSM	38.7	36.8	35.1
		WCDMA	88.2	83.6	79.4
차이나 텔레콤	고객수 (백만 명)	CDMA	51.1	60.2	44.9
		CDMA2000	6	21.1	53.1
	ARPU치 (위안)	CDMA	58.7	51.8	47.5
		CDMA2000	91.3	73.2	68.8
차이나 모바일	고객수 (백만 명)	GSM	533.7	548.4	493.4
		TD-SCDMA	5	31.5	102.7
	ARPU치 (위안)	GSM	73.6	68.4	65.2
		TD-SCDMA	98.7	92.8	88.3

## 설비 및 단말기 제조분야, 로컬 경쟁력 향상

2007년 9월 본 분석 팀이 TD, CDMA2000와 WCDMA 3가지 3G방식에 있어 중국 설비제조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에 달할 것이란 예측을 내놓았다. 현재까지 나온 3대 사업자의 3G 입찰 결과를 보면 중국 국내 업체의 비중이 모두 절반을 넘어섰다. CDMA2000와 TD-SCDMA의 경우엔 각각 65%와 80% 이상이다.

화웨이(華爲), 중싱(中興)을 대표로 한 국내 설비업체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시장대응이 빠르고, 가격대비 품질이 양호한 것이 강점이다. 중국

정부가 국내의 3G 산업사슬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중국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단말기의 경우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최종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이므로 디자인과 기능성이 특히 중요하다. 앞에서 지적했듯 3G의 다양한 서비스를 소화하려면 전용 단말기가 필수적이다. 서비스업자들의 경쟁에서 단말기의 중요성은 결정적이다. 현재 데이터카드 분야에서 경쟁력이 강한 화웨이(華爲), 중싱통신(中興通迅) 등이 3G WCDMA 분야에서 판매대수 기준으로 3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통신사업자들의 단말기판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 리서치 팀은 6월 상하이, 선전, 베이징 3대 도시의 각 사 판매본부를 현장 조사했다. 다음은 그 결과이다.

#### **CU - WCDMA**

- 휴대폰: 노키아, SonyEricsson, MOTO, 삼성, 중싱, 화웨이,  
가격대: 1,000~4,000 위안
- 무선인터넷 노트북(上網本): 삼성, ACER, LENOVO.  
가격대: 3,899~4,399 위안 (600 위안 무선인터넷 사용료 포함)

#### **CT - CDMA2000**

- 휴대폰: 총 4 가지 모델 (분리식). 삼성, 쿠파이(酷派), Dopod.  
가격대: 3,000~5,000 위안,
- 무선인터넷 노트북(上網本): 없음

#### **CM - TD-SCDMA**

- 휴대폰: 총 4 가지 모델. LG, 중싱, Dopod.  
가격대: 2,000 ~4,000 위안 이상
- 무선인터넷 노트북(上網本) : HP, DELL, HAIER, LENOVO.  
가격대: 3,399~3,999元 (600~1,500위안 무선인터넷 이용료 포함)

#### **- TD단말기 :**

TD 단말기의 산업화 수준은 뒤떨어져있지만 잠재력은 크다. 외자 TD 단말기 업체는 삼성과 LG가 있고, 로컬 TD 단말업체는 중싱통신(中興通迅),

---

쿠파이(酷派), LENOVO, 샤신(夏新), Bird(波導), 하이신(海信)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삼성, LG, 쿠파이(酷派)는 고가제품을 위주로 공급하는 반면, 화웨이, LENOVO, 샤신(夏新), Bird(波導), 하이신(海信)는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중싱통신(中興通迅)의 경우 프리미엄과 중저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현재 TD단말기 업체들의 연구개발능력, 기업규모 및 이윤창출 능력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LG 중싱 삼성 등을 제외한 업체들은 브랜드 파워가 크지 않은 데다 2G 시대의 경험이 부족한 탓에 향후 TD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중싱, 화웨이, LG, 삼성 등 4개사가 TD 단말기의 메이저 공급업체로 부상해 시장경쟁도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 CDMA단말기 :**

중국 CDMA 단말기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삼성, LG, 쿠파이(酷派)가 프리미엄 제품의 공급업체로 자리잡고 있으며 중싱, 화웨이, MOTO, 노키아는 중저가 제품 위주로 시장공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CDMA 단말기의 문제가 주로 1) 단말기 모델이 부족하며 2) 프리미엄 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3) 중간 가격대의 모델이 부족하다는 데 모아진다.. 따라서 앞으로 CDMA 단말기 시장에서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중고급 단말기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 분야는 전통적으로 한국 업체들의 영역이기도 하다. ‘품질’ 과 ‘가격’ 의 균형만 찾을 수 있다면 넓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 **- WCDMA단말기:**

노키아, 삼성, MOTO, LG, SonyEricsson, 중싱 등 세계 주요 단말기업체들이 거의 모두 WCDMA단말기를 생산할 정도로 WCDMA 시장의 경쟁은 가장 치열하다. 과거 2G 단말기 시장분할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중싱 화웨이는 CU와 협력해서 핵심업체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본 리서치 팀 추정결과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15% 이상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노키아의 강세는 지속되지만, 경쟁력이 중간수준인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컬 단말업체 가운데 프리미엄 노선을 걷고 있는

---

쿠파이(酷派), 중저가 노선을 취하고 있는 텐위량통(天宇朗通), 그리고 통신사업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은 중싱과 화웨이 등 업체가 선두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해외 단말업체의 경우 중국 통신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거나 중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TD-SCDMA와 WAPI 등에 대한 정책지원책을 활용해 시장기회를 찾을 수 있다. 로컬업체에 생산을 맡기고 마케팅에 집중하는 점유율 확대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LG 瞭望中國**



## 인터넷을 통해 본 중국의 북한관 변화 <China Trends · 29>

### 과거를 반추시키는 ‘낡은 거울’

“호기심과 설렘을 안고 조선(북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신비로운 조선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절로 생겼다. 여승무원이 중국어로 번역된 조선 잡지를 건네줘 한참을 읽어내려 가다가 깜짝 놀랐다.

갑소사, 문장마다 지도자의 이름이 들어 있는 게 아닌가. 더욱이 두 사람의 이름은 다른 글자보다 훨씬 굵고 컸다. ‘화재 현장에서 지도자 사진이 들어 있는 액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9세 여아가 영웅이 된 얘기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기내 안내방송이 나왔다. ‘위대한 장군님이 여러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하기 위해 이제부터 음료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음료수를 나눠주는 여승무원이 가슴에 달고 있는, 지도자 얼굴이 그려진 배지가 유난히 커 보였다. ……”



평양 공항에 도착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과 북한 여승무원의 모습

중국 인터넷에 올라온 한 네티즌의 북한 여행기의 일부이다. 문화대혁명 이후 태어난 중국인들에게는 북한의 지도자 숭배가 상당히 낮설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들이면서도 북한 사람들에 대해선 이질감을 느낀다. 중국인들 중엔 북한

여행을 ‘과거로의 여행’으로 부르는 이가 많다. 고생스런 지난날을 회상하다 보면 지금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고 한다는 여행상품이다. 현재의 북한은 중국의 지난날, 특히 문화대혁명이 휘몰아쳤던 1960년대 후반 중국의 모습과 유사하다. 추억을 더듬기 위해, 혹은 부모세대가 겪은 가난과 어려웠던 시절을 되새기기 위해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여행객들의 평균연령이 45세나 된다.

사실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 ‘형제국가’이지만 밀폐된 북한 사회 탓에 중국 일반인도 실상을 잘 모른다. 그래서인지 여행객들의 이 같은 여행기가 북한 실상을 전달하는 중요한 정보원이 된다.



35년만인 지난해 베이징에서 재공연된 북한의 유명 가극 ‘꽃 파는 처녀’

지난해 북경 국가대극장에서 열린 북한 가극 ‘꽃 파는 처녀(賣花姑娘)’는 중국인들의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제강점기 좁쌀 두 말의 빛 때문에 온 가족이 머슴살이를 하면서 겪는 시련을 내용으로 하는 이 공연은 1973년 중국 초연 시 많은 중국인들의 심금을 울렸다. 극장 앞에서 손수건 장사가 진을 칠 정도였다. 장년층이 된 당시의 관객들이 지난해 다시 극장을 찾아 눈시울을 적셨다. 중국에서 거의 사라진 ‘혁명가극’의 재림이 깊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일제시대와 혁명에 대한 기억이 없는 젊은 세대들은 언어적, 이념적인 이질성과 함께 느리게 진행되는 스토리 전개에 지루함을 못 이겨 중간에 자리를 뜨기도 했다.

## 가깝고도 먼 나라

# 미술관에 사과를 들고 있는 아담과 이브가 나신으로 그려진 그림이 한 폭

---

전시됐다. 영국인이 말했다. “남자가 맛있는 것을 여자와 나누려 하니 영국 사람이구만”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다. 누드로 산보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북한사람이 말했다. “옷도 없고 먹을 것도 많지 않는데 자신이 천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영락없는 조선사람이구만”

# 북한 국방위원장과 러시아 대통령이 ‘누구 보디카드가 더 충성심이 강한지’ 내기를 벌였다. 푸틴이 자신의 보디카드를 불러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는 울먹이면서 “저에게는 아내와 아이가 있습니다.”라며 거부했다.

이번에는 국방위원장이 북한 측 보디카드를 불러 같은 명령을 내렸다. 보디카드가 두말 않고 창틀에 올라서자 푸틴이 그를 덥석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러자 보디카드는 뛰어내리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외쳤다. “제발 놓아주세요, 제겐 아내와 아들이 있어요”

중국 사이버 공간에 떠도는 북한에 대한 우스개들이다. 과장되게 지어낸 얘기들이지만, 북한 사회에 대한 중국인들의 시각이 드러난다. 적지 않은 중국인들에게 북한은 정통 사회주의와는 다른 ‘세습왕조 국가’로 인식된다. 인신의 자유가 억눌리고, 주민들이 배를 주리는데도 쇄국정책을 실시하는 이상한 나라이다.

2006년 11월 북한을 풍자하는 30분짜리 동영상인 중국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공개돼 300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 북한 비밀 훈련소에서 훈련 중이던 ‘007’이 중국에 잠입해 온갖 난관을 뚫고 고급양주를 구해 국방위원장에게 상납한다는 내용인데, 이 역시 중국 네티즌들이 북한사회 및 지도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기아상황, 정치적 박해, 인권탄압 등이 북한사회를 특징짓는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 일반인들이 북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는 데엔 다양한 배경이 작용한다. 흔히 북한과 중국은 기껏해야 ‘50보 100보’의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중국은 과거 30년 동안의 개방정책으로 실리를 중시하는 풍조가 상당히 정착됐다. 더욱이 미국 드라마 등 서구문화의 대량유입으로 서구식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대도시 젊은층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현실과 동떨어진 사회주의 이론의 일방적인 주입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

## 이념과 실리, 서로 다른 길을 향해

전통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인적 유대와 이념적 연대로 결속된 각별한 우방이었다. 순망치한(唇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과 순치지방(唇齒之邦·입술과 이처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국가)이라는 말이 이를 잘 표현해준다.

북한은 중국 공산당의 국민당과의 전쟁을 막판에 후방에서 지원했고, 중국공산당은 한국전쟁에 참전해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의 아들을 비롯한 수많은 전사자들을 남겼다. 이어 1958년 인민해방군이 북한에서 철수하기까지 중국과 북한과의 갖가지 우호사례는 아직도 중국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남아있다.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 <상간령(上甘嶺)>의 포스터와 중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북한과의 우호사례 얘기인 <로성짜오(羅盛教)>의 삽화

그러나 1960년부터 양국간의 이념논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80년 이후 중국이 경제 건설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며 중국식 사회주의를 표방한 이후 두 나라간 이념적 괴리는 더욱 확대되었다. 1992년 한중 수교는 양국관계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과거의 혁명적 혈맹관계의 색채는 상당히 옅어졌다.

이러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북한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둔 중국의 단둥(丹東)시이다. 이곳 주민 왕징창(王景昌)씨는 인터넷에 띄운 글을 통해 “1960, 1970년대 이념투쟁 때 압록강 양안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서로 ‘수정주의’ 라고 비판하던 장면이 기억난다” 고 밝혔다. 당시 단둥 지역은 북한 처럼 계획경제였고 매월 1인당 15kg 쌀과 0.5kg의 돼지고기만 배정받고 살았기 때문에 북한보다 나은 게 없었다. 그러다가 1981년 중국과 북한의 무역정상화 이후에 북한 국경 수비군이 단둥 주민에게 담배와 과자를 달라고 하는 일이 잦

아졌다고 한다.

단둥은 중국 도시 순위에서 180등 안에 들어가기 힘든 변방 도시이지만, 강 건너 북한 땅과는 천양지차의 변화를 겪었다. 밤 8시만 되면 암흑에 잠기는 신의주와 달리 단둥은 조중무역의 활성화로 도시 전체에 생기가 넘친다.



압록강 하류의 유람선에서 본 중국 단둥의 빌딩숲(강의 오른쪽)과 건너편 북한 신의주 지역 여군들

##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반성론

중국에서 한국전쟁은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한다)’라고 불린다. 중국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중국 국경 지역에까지 진격해 오자, 이를 자국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 국민당과의 내전이 끝난 직후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병력의 절반 가량인 230만 명을 파병한다.

중국인들은 학교에서 ‘북한을 침략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동북지역까지 위협을 했기 때문에 ‘가족을 보호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保家衛國)’ 전쟁이 불가피했다’고 배웠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군대의 참전이 한 형제와 한반도의 운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의 내용을 담은 한국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는 중국인에게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역사에 접근하는, 큰 충격을 안겨줬다.

‘80후’ 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신화런(新化人)’ 게시판엔 최근 ‘한국전쟁의 진실’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중엔 마오 주석의 가르침이 거짓이었으며, 미국의 중국 침략의도의 진정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의 교육내용을 부정하는 주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입어, 중국 인민대학의 스인홍(時殷弘) 교수는 한인터넷 토론방에서 “중국이 참전한 것은 북한과 소련에 이끌린 것이었으며, 이는 명백

한 착오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전으로 중국 경제가 크게 악화됐고 미국과 불필요하게 대립함으로써 대만통일의 기회를 놓친 반면 중국은 매우 귀중한 이웃을 얻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선지루(沈驥如) 사회과학원 국제전략연구실 주임은 사회과학원이 발간하는 <세계경제와 정치>라는 잡지에 “북한과의 우호 동맹조약 중에서 중국의 군사개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마오쩌둥 아들 마오안잉(毛岸英)의 묘지 앞에 꽃을 바치는 북한주민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5월 말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중국은 참전해야 할 것인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통적인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파병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29%에 그친 반면, ‘한반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북한이 자업자득한 결과이기 때문에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자가 58.7%로 다수를 차지했다. 2003년 국무원 산하 중국사회조사소(SSIC)가 같은 이슈를 놓고 여론조사를 했을 당시에는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57%에 이르고 ‘지원해선 안 된다’는 비율은 19%에 불과했었다. 5년 만에 설문조사 결과가 정반대로 뒤바뀐 셈이다. 이는 중국인들이 북한을 지지하고 동정적이었던 종전의 태도에서 벗어나, 점차 북한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 ‘배은망덕 문제아를 키웠다(?)’

중국 네티즌들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이후 더욱 악화하고 있다. SINA, SOHU, BAIDU 등 주요 포털과 관영매체 사이트가 제공

---

하는 북한 관련 뉴스에는 북한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폭주한다. 그들의 비난은 주로 북한을 ‘배신자’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중국인들은 수십만 군인들이 피를 흘린 덕택에 오늘의 북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북한은 전혀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협의를 무시해가며 핵실험을 감행, 중국의 ‘미엔쯔(面子·체면)’을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환구시보는 6월 3일자 사설에서 ‘배은망덕’이라는 표현까지 쓴 데 이어, 유력 매체인 ‘난팡저우모(南方週末)’는 ‘왜 북한은 항상 중국에게 어려운 문제만 던져주는가’라는 강경한 논조의 기고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중국인들은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과 대만의 통일을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익과 안보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한국과 일본, 대만 역시 핵을 가지려 할 것이며, 이는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특히 환구시보의 조사에서는 북한 핵의 잠재적 피해자로서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한국, 일본을 꼽았지만, 이번에는 그 사정거리 안에 있는 중국을 지목하는 응답도 25.2%로 나타났다. ‘북한 핵은 어디까지나 협상용’이라는 오랜 해석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 ‘판롰(翻臉)’보다는 ‘벤롰(變臉)’

중국 젊은이들이나,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북한에 대한 비방이 중국 지도자들의 의중이나 정책에 반영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물론 1990년 이후 이념의 괴리, 국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지도부 간 인적 유대관계 약화 등으로 중국과 북한 간의 전통적 혈맹관계는 상당히 냉각된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유지와, 비핵화란 전제 위에서 경제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은 동북아 지역에서 유일한 핵 무장국인 중국의 전략적 우위를 상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한국, 대만의 핵 무장을 조장함으로써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선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더욱이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 세계 경제질서 속에 편입되어있어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한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 특히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양해와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중국은 북한 핵 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국가이다. 항일전쟁의 뼈아픈 상처를 꼭꼭 묻어둔 채 일본자본을 유치하고,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냉각시켜가면

서까지 한국과 국교를 맺고, 수십만 명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싸웠던 미국과 손을 잡았다. ‘하얀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라는 실리적 사고방식이 사회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지금 중국에게 쥐를 잡는 것은 바로 ‘경제건설’이다. 이에 도움이 되는 고양이는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국제관계, 그리고 주변국들의 협력인 것이다.



중국과 북한을 잇는 단둥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를 통과하는 차량들

그렇다고 중국이 앞장서 북한 응징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제재의 수위가 지나치면 오히려 평화적인 국제관계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선 북한 정권의 붕괴는 최악의 상황이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하고 한국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막강한 통일 한국 및 미국 군대와 국경선을 맞대고 대치하는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비록 새로운 정권이 등장한다 해도 그 정권의 성향이 친(親) 중국이라는 보장이 없다. 북한은 단순히 이념을 공유하는 사회주의 동지가 아니라 사실상 한, 미, 일 3국의 대중 견제를 막아줄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2차 핵 실험 이후 고조되고 있는 중국 내 반북(反北) 여론이 중국 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중국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입장으로 미뤄볼 때, 중국의 북한 정책 기조는 안면을 완전히 바꾸는 ‘판론편(翻臉)’ 보다 잠시 화난 표정의 가면으로 바뀌 쓰는 ‘벤론편(變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LG 瞭望中國**

편자 선임연구원

[ishen@lgeri.com](mailto:ishen@lgeri.com)



## 中國經濟 關注數字

### 45.3%

중국 1~5월 부동산 판매금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판매면적도 전년대비 25.5% 증가한 2.46억 평방미터로 2007년 같은 기간의 수준을 웃돌았음.

### 62%

중국 올해 대입 시험 응시자의 대입정원 대비 경쟁률. 2009년 대입시험 지원자 수가 1,020만명으로 줄어든 반면 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은 629만명으로 늘어나 합격률이 전년에 비해 5% 포인트 상승.

### 45.7%

사회과학원이 '도시 청서'를 통해 발표한 2008년 말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 급속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중국의 도시화율은 2000년에 비해 9.5%포인트 증가했고, 도시인구는 6억 명에 돌파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가 118곳으로 증가.

### 2,549위안

'2009년 대학생 취업 청서'가 밝힌 중국의 대졸 초임 월급.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면서 전국 주요 대학교 학생들이 작년 졸업 후 받은 초임 월급은 전년에 비해 14% 감소

### 10.6배

중국의 가장 부유한 도시 선전(深圳)과 가장 빈곤한 궈이저(貴州)성의 1인당 GDP 격차임. 균형발전 전략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격차도 1998년의 2.52에서 2008년의 3.31로 확대.

### 20억 위안

도시 주민을 상대로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배정한 예산임. 중국은 5월부터 베이징, 상하이, 텐진(天津) 등 9개 지역에서 TV, 내장고 등 5종 가전제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소비자들에게 판매 가격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



Graphic 中國經濟



중국 지역별 '천만 장자' 분포

랭킹	지역	'천만 장자' 수 (명)	비율 (%)	인구 만 명 당 천만 장자의 수 (명)
1	베이징	143,000	17.4	88
2	광둥(廣東)	137,000	16.6	14
3	상하이	116,000	14.1	62
4	저장(浙江)	110,500	13.4	22
5	장쑤(江蘇)	59,500	7.2	8
6	푸젠(福建)	31,200	3.8	9
7	산둥(山東)	27,900	3.4	3
8	랴오닝(遼寧)	25,700	3.1	6
9	쓰촨(四川)	21,200	2.6	3
10	허난(河南)	14,200	1.7	2
	기타지역	138,800	16.7	2
	합계	825,000	100	6

자료 : 2009년 후룬(胡潤) 보고서

주 : 1. 천만 장자 중 51,000명 억만 장자 포함. (1천만 위안 = 약 18.5억원)

2. 천만 장자의 대부분이 기업가, 자산투자자이며 평균연령 39세임



중국 대입 인기학과 랭킹

랭킹	2007년	2008년	2009년
1	국제경제통상	국제경제통상	국제경제통상
2	영어영문	영어영문	영어영문
3	공상관리(工商管理)	국제금융	국제금융
4	컴퓨터과학기술	공상관리(工商管理)	공상관리(工商管理)
5	법학	컴퓨터과학기술	회계
6	전자정보공정	경제	컴퓨터과학기술
7	금융	회계	토목공정
8	통신공정	법학	전기공정자동화
9	회계	전자정보공정	경제
10	전기공정 자동화	통신공정	법학

자료 : 新浪教育

주 : 1. 공상관리학과 = 경영학과, 전기공정자동화 = 기계디자인제조 자동화

2. 중국 대입시험일: 6월7일~9일

